

# 동북아시아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돌에 대한 기술형태학적 분류체계

- 셀렘자(Selemdja) 후기구석기 유적군의 몸돌을 중심으로 -

이 헌 종\*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몸돌의 속성분석   |
| 2. 몸돌의 분석방법  | 5. 몸돌의 기술적 고리 |
| 3. 몸돌의 여러 모델 | 6. 맺음말        |

## 1. 머리말

형이하학적인 물질문화의 산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 선사시대의 문화적 산물은 당시 대 환경이나 소 환경이 인간을 압박하면서 그에 따르는 생물학적인 적응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어떤 체계도 이러한 다양성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며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화적 산물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종합하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인류가 남겨놓은 산물은 단순히 몇 가지 변수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닌 인간이 가진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성향이 생물학적인 적응과정에서 수없이 파생되어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성향들은 우리가 만든 수많은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구석기시대의 유물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구석기시대인 들이 남겨놓은 산물들은 역사시대의 “역사적 기록”과 다르지 않은 물질적 역사기록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남겨놓은 작은 격지하나에도 당시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석재를 선택하고, 그 석재를 활용하여 몸돌을 만들고 격지를 떼어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인간 행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들이 고문헌을 고증하여 진정한 사료 여부를 밝혀 나아가는 것처럼 구석기전공자들은 구석기시대인 들이 남겨놓은 비문자 기록을

---

\*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고고학 전공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실험을 통하여 그 유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밝혀내기 위한 많은 검증과정을 밟아 그 결과를 문자로 표현한다. 결국 구석기 시대인 들이 남겨놓은 모든 산물은 모두 작은 의미 있는 문자들 또는 문장들의 집합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격지하나, 부스러기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내 버려두어서는 안된다.

구석기시대인 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산물 중에서는 우리를 쉽게 흥분하게 만드는 많은 산물들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잘 잔손질된 석기나 예술품들일 것이다.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구석기시대인 들의 기술수준, 의식세계를 밝혀 나아가는데 좋은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동과정을 밝혀 나아가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유물의 결과를 놓고 그들의 기술적 전통이라든지 거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인류의 초기 석기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위와 같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구석기인들이 초기에 어떤 돌을 선택하며, 이 돌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여 1차생산물들을 얻어내는가 하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 산물이 몸돌이다.

몸돌은 분명히 기술적인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형태학적인 측면에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형태학적인 분석방법은 언제나 몸돌의 전체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며 부분적인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몸돌을 이해하려면 한 몸돌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읽고자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우리 나라는 구석기시대 연구에서 몸돌을 연구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석기를 보는 시각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프랑스의 구석기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석기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하여 연구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순한 형태학적 접근을 벗어나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sup>1)</sup>가 보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기존의 형식학적 분석방법에 매인 연구는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형태학적 분석방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형식을 분류하는 연역적 연구법의 하나로서 왜 이 몸돌을 만들었는지 하는 기능적 측면과 어떻게 이 몸돌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 대해 관심 없이 외관상 특성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을 수 없는 방법이다. 이미 지난번 필자의 논문에서 피력했던 것처럼 석기제작기술, 석기의 기능, 석

---

1) Boeda E. 1991. Approche de la variabilite des systemes de production lithique des industries du paleolithique inferieur et moyen: chronique d'une variabilite attendue, *Techniques et culture* N17-18.

Boeda E. 1993. Levallois: Un concept volumétrique des methodes une technique, *The defini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Levallois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ance*. (University of Pensylvania and Havard).

기의 모양은 서로 당시 석기제작자의 혹은 집단의 정신체계 속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몸들에 대한 연구도 역시 이 세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단편적인 결과만을 얻게 된다<sup>2)</sup>.

따라서 몸들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석기인들이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머리 속에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현시켜 나아가기 위해 수행하는 전체적인 박리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전 박리과정의 하나 하나는 구석기인들이 구상하고 있는 목적 즉 어떤 경제 활동에 맞는 일련의 도구들을 생산하기 위해 세워놓은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추진되어지는 것이다<sup>3)</sup>. 또한 구석기인들이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철저한 기술분석에 의한 몸들분류와 접합석기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 2. 몸들의 분석방법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들은 이미 르발루아 몸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식되었던 일정한 과정 속의 산물이다. 특히 하나의 원석을 가지고 다량의 돌날을 혹은 격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체계를 인식하고 있는 후기구석기인들은 어떤 일정한 기술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예비몸들 제작방법과 박리방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동일한 전통을 가지고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기술적인 변화와 여러 환경적인 제약을 받으며 또 다른 변화과정도 함께 겪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적인 속성이 전통적인 기술체계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기술적 전통은 일정기간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자갈돌 석기전통의 연속적 성향과 동북아시아 후기구석기시대에 격지석기전통의 틀 속에 돌날석기전통이 등장하고 세형돌날문화가 계승하는 독특한 석기문화의 발전과정을 통해서<sup>4)</sup> 이러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각 석기문화가 접촉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석기문화와의 갈등과정은 많은 석기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게 된다. 석기문화의 전이과정은 1차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며 그러한 속성들을 여러 기술체계 속에서 찾아내면 당시의 문화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구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몸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분석은 당시 문화적인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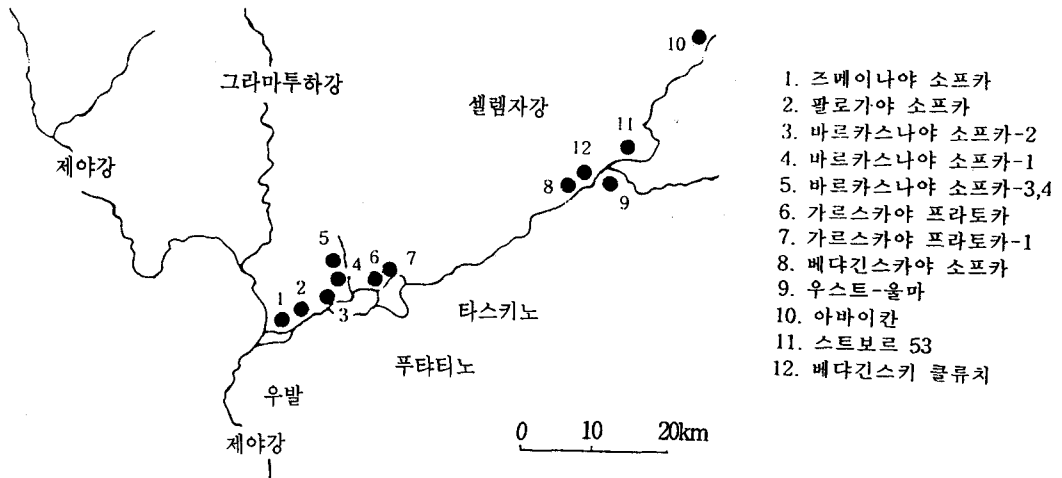
몸들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속성을 찾아내기 위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

2) 李憲宗, 1995. 「後期舊石器時代の 研究方法에 대한 檢討」 『慶熙史學』 第19輯, 慶熙大學校史學會.

3) Boeda E·J.-M. Geneste·L. Meignen 1990. Identification de chaines operatoires lithiques du paleolithique ancien et Moyen, *Paléo* No. 2

4) 李憲宗, 1997b.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석기제작기술의 다양성」 『수양개와 그 이웃들』 :第2回 國際學術大會, 丹陽鄉土文化硏究會·忠北大學校博物館

상은 셀렘자 후기구석기문화의 몸들들이다. 이 셀렘자문화는 아무르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인 셀렘자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총 15지점의 구석기유적군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각 유적의 퇴적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문화는 크게 4개의 문화층을 가진 다층위 복합체(complex)이다. 이 유적 군은 각 문화층을 따라 몸들을 비롯한 석기들의 기술적 변화과정을 읽을 수 있어서 아무르지역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구석기유적군 중의 하나이다. 셀렘자 구석기인들은 대략 25,000-10,000년 사이, 즉 15,000년에 이르는 긴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아무르강 상류의 셀렘자강 유역의 언덕을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였고 10만점이 넘는 많은 석기들과 예술품을 남겼다<sup>5)</sup>.



〈그림 1〉 셀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 분포도

이번 연구에서는 셀렘자유역의 15개의 유적 가운데 11개 유적 178점을 선택하여 이 몸들에 대한 기술형태학적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 몸들들을 기존의 외형적 특성에 의존한 형태학적 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형식

5) Derev'anko A.P. 1994.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icroblade Industries in Southeastern part of Far East, *The Origin and Despersal of the Microblade Technique in Northern Eurasia*, Sapporo.

Derevianko A.P. · V.N. Zenin 1995. *Paleolit Selendji*, Novosibirsk.

Lee, Heon-jong, 1995. *Pozdnepleoliticheskie kompleksyi uga rossiiskogo dalinego bostoka I sopredelinykch territorii*(러시아 極東南部와 周邊地域의 後期舊石器文化), dok.dicc..

분류는 이미 결과적으로 드러난 외형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므로 그 몸들의 다양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석재에 의한 형태적 한계에서 오는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세부적인 분석도 용이하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덜 효과적이다.

구석기시대의 석기연구에서 형식분류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1950년대 이후 몸들도 그 외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사각형, 준 사각형, 원추형, 원판형,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 등으로 분류하였다<sup>6)</sup>. 이들의 분석은 당시 프랑스의 분류체계를 상당히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몸들들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또한 기술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술을 설명하기에는 각 군을 설정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그 동안 몸들에 대한 연구 가운데 브레질리온(M.N.Brezillon)의 분류표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가지의 다양한 몸들의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크게 방사상박리에 의한 격지몸들, 르발루아몸들, 돌날몸들제작의 기법과 연관된 여러 종류의 몸들이 소개되고 있다<sup>7)</sup>. 이 분류표에서 돌날몸들과 관계 있는 몸들은 11종류가 있다. 그런데 분석과정에서 두타격면 혹은 두박리면 이상 되는 박리과정을 밟은 몸들은 돌날제작 기술이란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부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자료로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몸들들을 제외하면 그의 분류표는 다양한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들을 분석하기에 그다지 체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 구석기학자들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속성을 제시하지 않고 타격면을 중심으로 1타격면 1작업면, 1타격면 2작업면, 2타격면 1작업면, 2타격면 2작업면, 다타격면 다작업면 등으로 정리하고 그 틀 안에서 수치를 제시하므로써 몸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sup>8)</sup>. 돌날떼기를 위한 몸들조정과 박리과정을 복원한 최근자료가 제시되었는데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기초로 설정되어 있다<sup>9)</sup>. 최근에 도로니체프(V.B.Doronichev)는 노보시비르스크 학교의 몸들분류체계와 관점이 다른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작업면을 가지고 1) 한면(6式) 2) 두면(10式) 3) 여러면(9式) 등 세 군으로 나누고 각 군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25式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 분석표는 타격면에 분류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작업면의 수 즉 한 작업면에 몇 개의 타격면으로부터 박리한 흔적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각 式이 분류되었다. 이 각

6) Korovkov I.I. 1965. Nukleus Yashitakha(야쉬타흐유적의 몸들), *MIA 131*, M-L-.

Lyubin 1965. K voprosu o metodike izucheniya nidjnepaleoliticheskikh kamennykh orudii(전기구석기시대 석기연구방법에 대한 문제), *MIA 131*, M-L-.

7) Brezillon M.N. 1977. *La denomination des objets de pierre taillée*, CNRS p.89.

8) Derevianko A.P. · S.V. Markin 1992. *Must'e Gornogo Altaya*(고르노 알타이의 무스테리안문화), Novosibirsk.

Derevianko A.P. · V.N. Zenin 1995, *op.cit.*

Vasilievskiy · Gladyshev 1989. *Verkhni paleolit Udinnogo Primor'ya*(남부 프리모리에의 후기구석기), Novosibirsk.

9) Derevianko A.P., D.B. Shimkin, W.R. Power (edited and compiled), 1998. *The Paleolithic of Siberi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and Chicago.

식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분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sup>10)</sup>.

이러한 두 관점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분석방법은 몸돌제작자가 가장 많은 기술적 속성을 남겨놓는 타격면과 박리면의 양상을 규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도로니체프가 제시한 기술 분화과정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면 세부적인 몸돌의 속성을 밝히는데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도로니체프의 작업면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격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분석대상이 전기구석기시대의 몸돌이기 때문에 비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몸돌을 지나치게 세분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즉 세 타격면 이상의 여러 타격면으로부터 박리된 결과로 나타나는 작업면을 가진 몸돌은 좁은 공간에서 일정한 법칙없이 발생하는 비조직적인 박리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물론 적용하기 나름이지만 이러한 몸돌의 식이 도로니체프의 분류에서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 타격면과 세 작업면 이상의 몸돌은 속성분석에서 돌날, 돌날 격지, 격지 등 어떤 종류의 1차생산물을 떼어내었는지를 파악하는 정도로 그 한계를 두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몸돌군은 수량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동안 유럽과 러시아의 여러 분류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타격면과 박리면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분류는 단순히 형태학적 틀 이상의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분류체계에 세부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술-형태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기술적인 속성분석을 통해서만 몸돌에 투영된 구석기인들의 사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며, 2차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시도된 분류표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3. 몸돌의 여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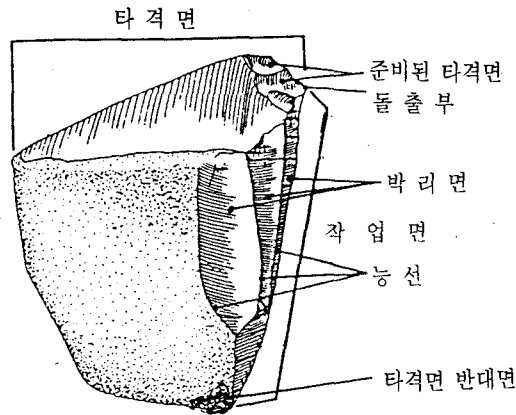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 채택된 11개유적 178개의 몸돌을 가지고 하나의 체계적인 작업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각 모델들은 석재를 선택하면서부터 예비몸돌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남게되는 최종단계의 몸돌의 형태를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내어 보여질 것이다.

몸돌은 타격면(striking flatform)과 작업면(Working face), 타격면 반대면의 여러 특성이 주 연구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비몸돌을 만들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타격하여 어떤 형태의 1차생산물을 생산하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에 결국 구석기시대인들의 초기 박리

10) Doronichev 1991. Analiz tekhnologii rassepleniya kamnya v raniem paleolite: problema metoda(전기 구석기시대의 석기제작기술 분석:방법 문제), *Sovetskaya Arkheologiya* 3, - M. pp.130-138.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1차생산물의 외형을 규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을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몸들을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타격면, 타격점, 돌출부, 타격면 반대면, 작업면, 박리면, 능선 등이다(도면 2). 먼저 몸들은 분류의 편의에 따라 크게 群(Group), 式(Type), 亞式(subtype)으로 나누고자 한다. 군은 아래와 같이 크게 6개군으로 나누었다:



<그림 2> 몸들에 대한 주요 용어(Inizan · Roche · Tixier, 1992. 인용, 일부 수정)

- A. 1타격면 1작업면
- B. 1타격면 2작업면
- C. 2타격면 1작업면
- D. 2타격면 2작업면
- E. 다타격면 다작업면
- F. 특별몸들

특별몸들은 물론 위의 A에서 E 群까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으나 형태학적으로 분류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각주형 몸들, 르발루아기술이 보이는 몸들, 방사상 박리가 뚜렷한 몸들 등은 시대나 전통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술형태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적간에 혹은 지역 간 비교의 지표자료가 된다.

동북아시아의 후기구석기유적에서 발견되는 많은 돌날은 이때 자주 사용된다고 생각했던 간접떼기나 눌러떼기에 의한 박리가 그다지 자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상당량의 돌날은 비정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돌날의 단점은 단순절단기법과 잔손질 기법으로 해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8:①-⑦). 석재 망치도 각 크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8:⑬-⑮).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망치의 존재는 석기제작과정에서 직접떼기가 매우 중요한 기술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으며 돌날떼기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A. 1 타격면과 1 작업면을 가진 몸돌(그림 4, 5)

A1.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거나 한번 혹은 여러 번에 걸쳐 한쪽 방향으로 박리 하므로써 형성된 타격면을 가진 몸돌로서 대부분 돌날을 떼기 위한 몸돌이다. 이 몸돌군은 타격면의 양상에 따라 다시 6개의 亞式으로 세분된다.

A1.1. 기운 타격면(그림 9). 직접타격으로 수직 혹은 대각선 박리를 통해 돌날이나 돌날격지를 얻는데 가장 기본적인 박리기술이다.

A1.2. 평평한 타격면(그림 10:①). 이 몸돌은 한번 혹은 여러 번에 걸친 박리에 의해 평평한 타격면을 만들었다. 이러한 타격면을 이용하여 박리를 가할 때 자주 타격면과 작업면사이의 각이 둔각이 되기도 하거나, 생산물의 끝부분이 지나치게 두터워져 원하는 생산물을 얻기에는 비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작업면에는 자주 계단식 박리흔이 자주 보이는 것도 이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A1.3. 기운 자연타격면(그림 10:②). 이 몸돌은 타격면이 자연면이지만 의도적으로 기운 타격면을 선택하여 수직 혹은 대각선 박리를 통하여 1차생산물을 얻는 기술적인 과정을 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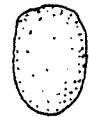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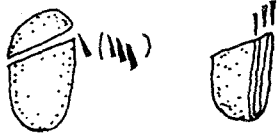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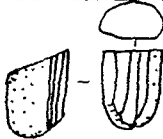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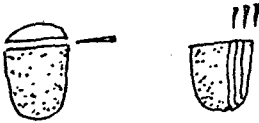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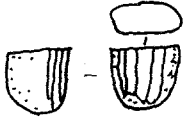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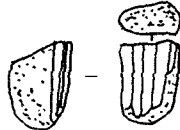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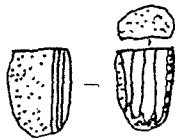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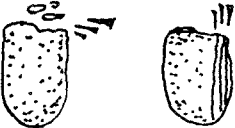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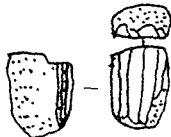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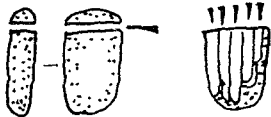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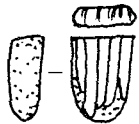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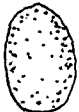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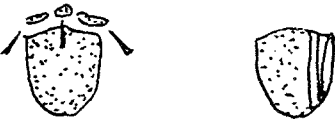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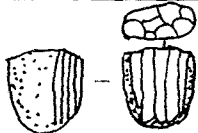
A1.4. 평평한 자연타격면(그림 10:④). 이 몸돌은 평평한 자연 타격면을 이용하여 수직타격을 한 몸돌이다.

A1.5. 부분타격면(그림 10:⑦). 이때 타격면은 기운타격면과 평평한 타격면을 모두 갖는다. 이러한 타격면은 석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비교적 얇은 두께의 자갈돌을 원석으로 채택할 경우와 석재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자주 이러한 타격면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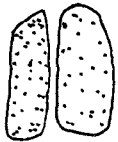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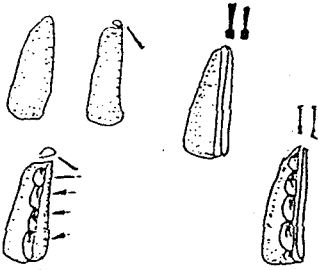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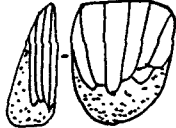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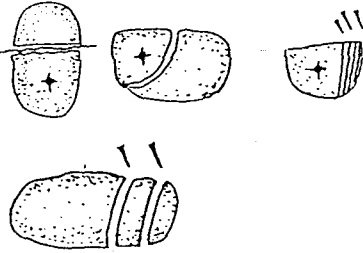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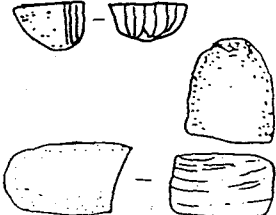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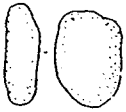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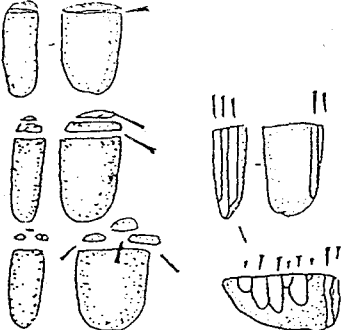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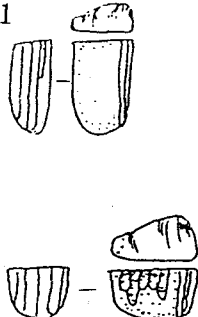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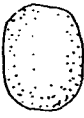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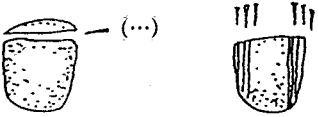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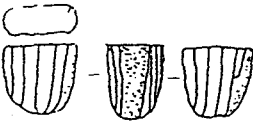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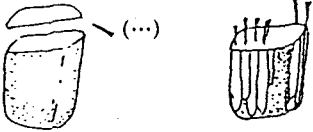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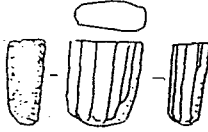
A1.6. 측면 박리에 의한 타격면(그림 10:③⑤⑥). 이러한 타격면은 넓은 면에서 박리를 가하여 타격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좁은 측면에서 1-2회에 걸친 강한 박리를 가해 타격면을 만든다. 이 몸돌은 측면 박리에 의한 타격면이 활용되기는 하지만 작업면은 넓은 면을 이용한다. 결국 타격면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뒤에서 설명할 측면몸돌의 타격면 형성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A2. 여러 번에 걸친 방사상 박리를 통해 만든 타격면(그림 10:⑧). 이 타격면과 작업면의 각도가 직각 혹은 부분적으로 둔각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돌날제작에는 부적절한 타격면 제작 방법으로 보이나 박리할 때 몸돌을 쥐고 있는 손의 위치를 변형시켜 가면서 그 각도를 예각으로 전환시키면서 박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날제작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석재	박리과정	박리결과
A1.1			
A1.2			
A1.3			
A1.4			
A1.5			
A1.6			
A2			

<그림 4> 돌질분류표 I

	석재	박리과정	박리결과
A3			
A4			
A5			
B1			
B2			

〈그림 5〉 몸돌분류표 II

기법이다. 하지만 이 제작과정은 자체적으로 기운타격면을 만들어 돌날을 떼어내는 방법에 비해 덜 사용되는 편이다.

A3. 반원형 몸돌(그림 11:①②). 이 몸돌은 타격면의 각도가 매우 좁아 비교적 큰 하중을 주는 망치를 이용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박리를 하여 돌날을 떼어내면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박리를 할 때 하중이 최대한 바닥면까지 이어지도록 수직박리를 시도한다. 이 석기의 바닥면은 자주 양극현상이 일어나거나 심하게 부수어진 흔적이 남는다. 떼기를 할 때 고정시키기에 편하도록 몸돌의 양 가장자리에 잔손질을 베푸는 경우도 있다. 석재에 따라 혹은 박리 방향에 따라 작업면의 길이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몸돌은 그 기능적 효용성이 사라질 때 타격면 위치를 조정타격하여 석기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이 몸돌은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돌제작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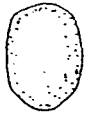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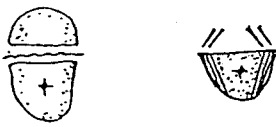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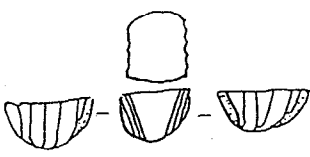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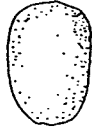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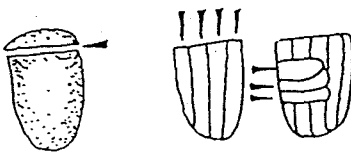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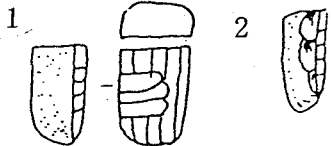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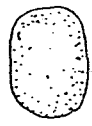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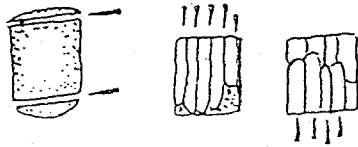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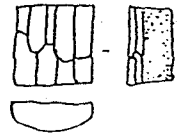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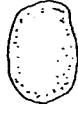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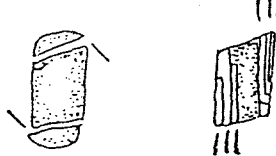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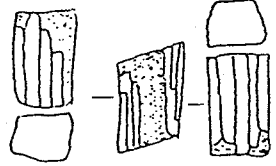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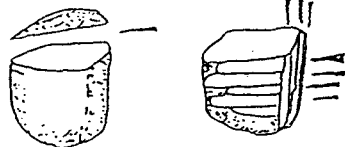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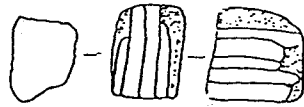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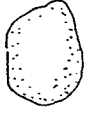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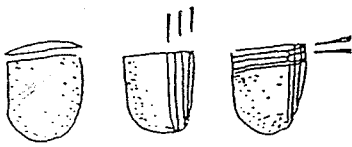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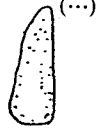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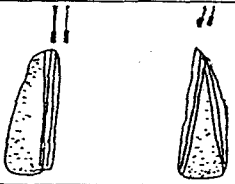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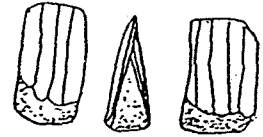
A4. 평평한 넓은 타격면. 이 몸돌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이 몸돌은 우선 인공적으로 크게 반파하여 넓은 타격면을 만들고 그 가장자리들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1차생산물을 얻는다(그림 11:③-⑤). 둘째는 두터운 판석모양의 자갈들 자연면의 넓은 타격면을 이용하여 1차생산물을 얻는다(그림 14:⑤). 이 방법으로는 주로 작업면 전체가 박리 되는데 돌날보다는 큰 격지나 돌날격지를 떼어내는데 자주 사용된다. 이 원석은 보통 땅바닥에 대고 한손으로 고정시킨 후 망치로 대각선으로 박리를 가해 1차생산물을 떼어낸다. 이러한 방법으로 타격을 하다보면 작업면 전체가 넓고 큰 격지가 떼어지기도 한다. 결국 이 방법으로는 주로 작업면 전체가 박리 되는데 돌날보다는 큰 격지나 돌날격지를 떼어내는데 자주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A5. 측면몸돌(그림 11:⑥-⑧). 이 몸돌의 타격면은 넓은 면에서 박리를 가하여 타격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좁은 측면에서 간단히 타격면을 조성한 후 강한 박리를 가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타격면을 이용하여 좁은 측면을 박리할 면으로 선정하여 주로 돌날을 생산한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초기 몸돌은 시베리아와 극동의 후기구석기시대에 넓은 분포를 보이는 측면몸돌로서 썰기형 세형몸돌의 原始形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몸돌에는 마치 세형몸돌에서나 보이는 타격면 주위에 대한 예비박리가 이루어지거나 바닥 능선을 만들기 위한 간단한 조정타격의 흔적이 보이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방사상박리나 여러 번의 박리를 통하여 측면몸돌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을 보이는 몸돌도 자주 발견된다. 세형돌날문화와 연관된 유적에서는 이러한 몸돌이 세형몸돌과 함께 자주 발견된다.

### B. 1 타격면과 2 작업면을 가진 몸돌(그림 5, 6)

이 몸돌群의 경우는 타격면의 양상과 연관시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타격면에 적용하면서 몸돌의 어느 위치에 어떠한 배치로 작업면이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11) Binder D. 1984. Systèmes de débitage laminaire par pression: exemples chasséens provençaux, *Préhistoire de la pierre taillée* 2. p.79

	석재	박리과정	박리결과
B3			
C1			
C2			
D1			
D2			
D3			
D4			

<그림 6> 몸돌분류표 III

B1. 평행한 작업면(그림 12:①). 타격면의 박리양상은 단일 박리, 여러 번 박리, 방사상 박리, 부분 박리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몸들은 작업면이 타격면의 양쪽에 나란히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B2. 인접한 작업면(그림 12:②). 작업면이 서로 인접하도록 박리하는 방법인데 이 형태에 속하려면 두 작업면이 서로 접하지 않아야 한다.

B3. 좁은 양 측면에 박리를 가한 몸들(그림 12:③). 이 몸들은 A5. 측면몸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특성이 새형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후기구석기문화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 C. 2 타격면과 1 작업면을 가진 몸들(그림 6)

C1. 수직 교차되는 작업면(그림 12:④). 이 형태는 우선 타격면으로부터 1차적으로 박리를 시도하고 그 한쪽 측면에서 재차 동일한 작업면 쪽을 이용하여 1차생산물을 얻는 순서를 갖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가끔 측면에서 박리할 때의 타격면은 자연면일 경우도 있다.

C2. 반대로 놓여진 두 타격면으로 부터 떼어낸 작업면을 가진 몸들(그림 12:⑤⑥). 타격면은 서로 마주보는 두부분에 있고 우선 한쪽 타격면에서 한 작업면으로 박리를 한 후 다시 반대 타격면에서 다시 이전의 작업면으로부터 격지나 돌날을 떼어낸다.

### D. 2 타격면과 2 작업면을 가진 몸들(그림 6)

D1. 반대로 놓여진 두 타격면을 가진 몸들(그림 12:⑦). 두 타격면이 모두 기운 타격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작업면은 결과적으로 거의 평행하게 놓여지게 된다. 이러한 몸들을 위한 원석은 직육면체에 가깝거나 두터운 긴 타원형의 자갈이 자주 활용된다.

D2. 수직으로 놓여진 작업면을 이용한 몸들(그림 12:⑧). 우선 한 방향으로 박리를 가하여 작업면을 조성하고 그 면의 한쪽 끝을 다시 타격면으로 이용하여 박리가 없던 면을 작업면으로 삼아 떼기를 한 몸들이다.

D3. 양면으로 떼기를 한 몸들(그림 13:①,②). 이 몸들은 우선 한쪽 방향으로 타격을 하여 1차생산물을 얻는다. 다시 타격면으로 사용된 면과 반대되는 면으로 박리를 시도하여 격지나 돌날을 떼어낸다. 이 기술이 적용된 몸들의 타격면 자리는 마치 교차 박리한 듯한 외형은 갖지만 규칙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일관되게 한쪽 편에 타격면을 만든 흔적이, 또 다른 편에는 작업으로 활용한 흔적이 남는다.

D4. 양면박리를 시도한 반원형 몸들(그림 13:③-⑤). 이 몸들은 타격면의 각도가 매우 좁아 비교적 큰 하중을 주는 망치를 이용,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박리를 하여 돌날을 떼어내면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박리를 할 때 하중이 최대한 바닥면까지 이어지도록 최대한 수직박리를 시도한다. 그와 동일한 방법이 그 반대편 박리에도 적용된다. 이 석기의 바닥면은 자주 양극현상이 일어나며 아니면 심하게 부수어진 흔적이 남는다. 폐기를 할 때 고정시키기에 편하도록 양측면에 잔손질을 베푸는 경우도 있다. 이 몸들은 마치 양면석기처럼 보여 자주 석기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몸들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몸들의 기술적인 속성은 D3.의 기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지만 A.3.의 기술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D5. 비조각적인 작업을 한 몸들.

D群的의 틀을 가지고는 있으나 어떠한 정형성을 갖지 않은 몸들을 말한다. 극동의 후기구석기시대 유적에서는 의외로 이러한 몸들의 수가 많지 않다. 그것은 석기제작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E. 여러 부분의 타격면과 여러 부분의 작업면을 가진 몸들

- E1. 단일 타격면과 3부분의 작업면을 가진 몸들
- E2. 두 부분의 타격면과 세 부분의 작업면을 가진 몸들
- E3. 세 부분의 타격면과 세 부분의 작업면을 가진 몸들
- E4. 두 부분의 타격면과 네 부분의 작업면을 가진 몸들
- E5. 세 부분의 타격면과 두 부분의 작업면을 가진 몸들
- E6. 부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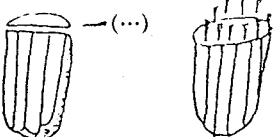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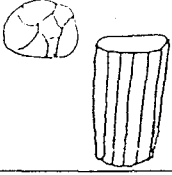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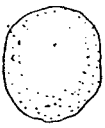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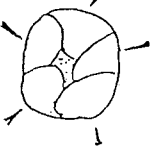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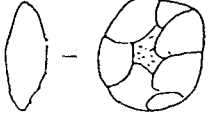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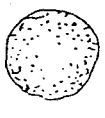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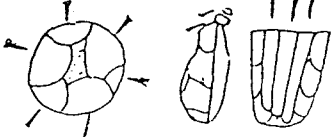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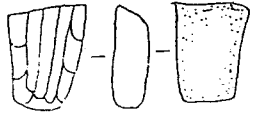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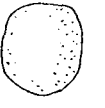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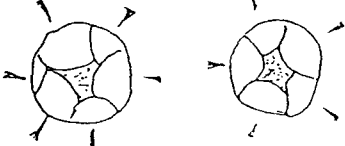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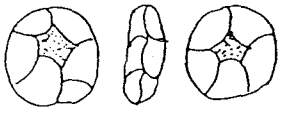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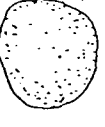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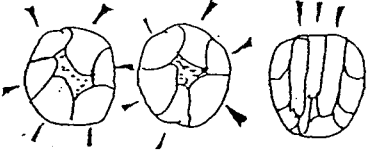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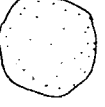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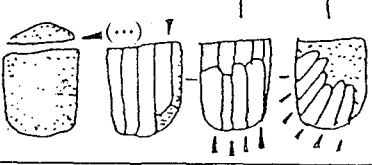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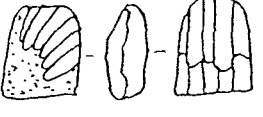
#### F. 특별 몸들(그림 7)

이 F군의 분류 가운데 격지를 떼어내는 일련의 기술적 과정에는 타격면을 만드는 과정이 돌날의 타격면을 만드는 관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마치 타격면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것까지도 깊은 타격을 통해 원하는 격지를 생산하는 목적을 겸하여 박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더 세부적인 몸들분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 F1. 각주형 몸들(그림 13:⑥,⑦)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들 중 가장 기술적으로 완성된 몸들이다. 원석의 한 가장자리에 타격면을 만들고 그 전 타격면 주위를 수직에 가깝게 박리하여 몸통부분의 전 주위가 박리된 몸들을 말한다.

#### F2. 외면 방사상박리를 한 몸들

	석재	박리과정	박리결과
F1			
F2.1			
F2.2			
F3.1			
F3.2			
F4			

<그림 7> 몸돌분류표 IV

F2.1. 외면 방사상박리를 한 몸돌(그림 13:⑧). 가장 원시적인 기술이 적용된 몸돌로서 거의 전시기에 걸쳐 존재한다. 주로 격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F2.2. 방사상박리를 한 몸돌의 발전형. 전통적인 박리방법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원칙적인 방사상박리 기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선 원형 혹은 타원형의 자갈들의 주변을 돌아가며 박리를 한후 한쪽 끝 가장자리를 간단한 박리로 타격면을 만들고 돌날을 떼어낸다. 최초의 방사상박리는 마치 예비몸돌을 만들기 위한 조정타격의 양상을 보이지만 적어도 후기구석기시대에는 격지생산과 돌날생산을 공동으로 염두해 둔 기술과정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르발루아 기법과 유사하다. 이러한 형태의 몸돌이 만들어지려면 그다지 두텁지 않은 원형이나 타원형의 자갈이 필요하다. 셀렘자 유적 군에서 이 몸돌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F3.2와 같은 몸돌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몸돌 또한 다른 유적에서 함께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F3. 양면의 방사상박리를 한 몸돌.

F3.1. 양면의 방사상박리를 한 몸돌(그림 13:⑨; 그림 14:①) 기술적으로는 외면의 방사상박리를 한 몸돌과 같으나 양면으로 박리를 하므로써 보다 많은 양의 격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몸돌은 찍개나 양면석기와 구별이 쉽지 않다. 하지만 박리의 목적이 격지를 떼어내는 것이라면 양면석기의 외형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되므로 양면석기를 만드는 것보다 거칠다. 이 몸돌은 후기구석기시대에 와서 격지만을 위한 몸돌이 아니고 돌날제작에도 활용된다.

F3.2. 방사상박리를 한 몸돌의 발전형(그림 14:②,③). 이 몸돌은 르발루아기술의 발전형과 연관된 것이다. 하지만 이 유사성이 어떤 기술적 법칙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F4. 복합형 몸돌(그림 14:④). 이 몸돌은 도면상에서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돌날떼기 기술과 격지를 떼는 기술이 함께 포함된 몸돌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몸돌들은 당시 구석기인들이 기술적으로 겪는 갈등, 당시 대표성을 보여주는 기술의 표현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몸돌을 이와 같이 기술-형태학적으로 분석하면 선사인들이 석기를 만들기까지의 초기 사고체계를 인식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시해 주며 그와 더불어 그들의 전통과 습관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몸돌연구는 다른 훌륭한 형태의 석기를 연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며 이 부분의 정밀한 연구야말로 유적간 지역간 석기문화의 제양상을 분석하는데 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 4. 몸들의 속성분석

몸들의 속성을 좀더 밝히기 위하여 기초적인 6가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것은 몸들을 분석하는데 필수적 것들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특성을 통계화하는 방법으로 많은 양의 몸들을 연구할 때 필요하며 또한 위에서 설명한 몸들 분류체계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편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질적 속성을 설정할 때에는 그 내용이 단순하다 하여도 그 속성을 정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견되지 않은 것이거나 분석자의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분석은 그 동안 고고학에서 시도된 통계방법 적용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통계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는 문제까지 다룰 생각은 없다. 그것은 다양한 통계 방법 가운데 각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여 익숙한 방법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그래프도 역시 시중에 나온 software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선호하는 것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1) 타격방향, 2) 타격면의 성격과 작업면의 평균 길이, 3) 타격면 조정 흔적, 4) 타격면 반대면의 흔적 여부, 5) 작업면의 위치, 6) 작업면 상의 작업면의 길이 등이다.

### 1) 타격방향

이 부분의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각 분류 군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타격할 당시 몸들을 가지고 행하는 각종 방법을 추적할 수 있다. 이것은 타격면과 작업면의 각도와도 연관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세분하고자 할 때 대각선 박리의 경우 예각  $1(45^\circ \sim 70^\circ)$ , 예각  $2(30^\circ \sim 45^\circ)$ , 예각  $3(30^\circ \text{ 이하})$ 으로 나누어 타격방법과 1차생산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돌날 혹은 격지를 떼어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만들 수 있다.

1.1) 수직. 1.2) 대각선. 1.3) 복합(수직+대각선). 1.4) 둔각

우선 4가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과 가운데 수직방향이 많을 경우 석재의 재질에 따라 파악이 어려운 타격방법의 차이를 구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수직방향과 둔각의 경우 타격면의 평균길이가 정상적인 박리에 의해 다른 몸들과 같이 작업면의  $1/2$  이상일 경우 이 타격방향이 격지나 돌날격지를 박리하는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2$  미만의 경우는 타격면이나 작업면 조정을 위한 예비타격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진정한 박리기법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수직타격의 경우 직접타격이건 간접타격이건 상관없이 이 기술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돌이 갖고 있는 저항력과 작업면의 길이가 반비례한 원리를 극복하기 위한 부대적인 기술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고정도구의 활용이다. 이 고정도구를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론은 돌의 저항력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돌의 저항력과 더불어 수직 방향으로 타격하여 1차생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은 돌의 재질을 비롯하여 제작자의 형질적인 우월성 여부 즉 힘과 기술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대각선 박리가 많은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돌의 저항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직접떼기 기법의 하나이다. 이 기술은 격지를 떼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돌날떼기 기법에서도 이 기술은 역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대각선 박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으로 정확한 타격지점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형의 돌날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보다 긴 돌날을 떼어내고 그 형태가 휘어지지 않은 돌날을 떼기 위해서는 그 대각선의 방향 또한 수직에 가깝게 조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기술적인 속성이 석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 타격면의 성격과 작업면의 평균 길이

이 부분은 돌날제작전통이 있는 유적이나 유적군을 예로 들어 정리한 것이다. 격지석기가 두드러질 경우 격지의 성격과 크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만일 돌날제작전통과 격지제작전통이 혼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검토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자갈돌석기전통의 경우는 몸돌자체가 격지생산을 원칙으로 하여 나타난 산물이므로 격지의 크기의 차이가 중요하다. 이 격지는 석기를 만들어 내는 기반이므로 석기의 크기와 격지의 크기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므로써 잔손질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구석기문화의 기반이 돌날제작전통이므로 돌날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2.1) 대형돌날, 10 cm 이상. 2.2) 중형돌날, 10cm미만 7cm 이상  
 2.3) 소형돌날, 7cm미만. 2.4) 돌날격지. 2.5) 격지. 2.6) 혼합  
 격지의 경우 7cm 이상은 대형격지, 5cm 미만 3cm 이상은 중형격지,  
 3cm미만을 소형격지로 보고 정리하는 예가 많다.

### 3) 타격면 조정 흔적

3.1) 있다. 3.2) 없다.

이 질문은 각 유적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타격면을 조정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혹시 타격면 조정 흔적의 여부가 많은 비율 차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면 복잡하게 얽힌 기술적인 속성들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석재활용 여부, 기술적 특성 등을 밝히는데 많은 설명을 제공한다.

### 4) 타격면 반대면의 흔적 여부

4.1) 부수어진 흔적이 있다. 4.2) 없다. 4.3) 깊게 깨어진 박리흔이 포함됨.

이 질문은 1차생산물을 만들 때의 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접타격으로 석기를 제작할 때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실험을 통해서는 석재가 좋을 경우 손으로 쥐고 몸들을 약간 기운 다음 박리를 하면 어렵지 않게 돌날을 떼어낼 수 있으나 대석 위에 몸들을 올려놓고 격지나 돌날을 떼어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나 기술체계 상에서 이 방법이 혼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보면 이 질문은 중요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석재의 질과 타격면과 작업면의 각도를 비교하여 실험을 통해 힘의 하중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후에 어느 정도의 힘을 투여하여 1차생산물을 만들어 냈는지 추정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연구는 후에 형질인류학적 자료가 발견되었을 때 해부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가 많을 경우 기술적으로 양극타법(bipolar)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술적 속성이 함께 공유된다면 그 공유하는 정도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를 통하여 주요 석기제작기법이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5) 작업면의 위치

5.1) 넓은 부분. 5.2) 좁은 측면

좁은 측면에 위치한 작업면을 가진 몸들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측면몸들의 비율과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하는 질문이다. 모든 돌날몸들은 넓은 부분을 작업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돌날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관점은 돌날문화의 연속선상에서 등장하는 세형돌날문화의 몸

들에서 보이는 측면몸들의 기술적인 여러 아이디어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측면몸들은 원석의 한쪽 좁은 가장자리에 박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몸들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 이 몸들이 버려지는 단계에서는 그 남겨진 형태가 단일타격면과 단일작업면을 가진 몸들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작업면으로부터 1차생산물을 떼어낸후 다시 타격면과 작업면의 일부를 조정한 이후 계속해서 박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분석과정에서는 타격면과 작업면에서 보이는 기술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맞추어 시행한 여러 실험을 통하여 볼 때 흑요석, 응회암, 입자가 고운 퇴적암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강에서 채집되는 다른 석재의 경우 몸들이 최후에 폐기될 때까지 활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몇몇 특별한 석재를 제외한다면 측면몸들의 기술적 특징을 알아내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작업면을 가진 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넓은 면이나 좁은 측면을 모두 1차생산물을 얻는데 활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몸들은 넓은 면으로부터 좁은 면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박리된 흔적이 남는다. 하지만 넓은 면 뿐 아니라 측면 또한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1차생산물을 얻고자 한다면 좁은 측면의 양쪽에 있는 면 일대에 대한 조정타격을 가하는 일련의 작업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좁은 면과 넓은 면과의 기술적인 속성 가운데 어느 것이 주체적이고 어느 것이 종속적인가 하는 입장에서 몸들을 주목한다면 당시 구석기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 몸들을 제작하였는지 대부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업면의 위치를 밝혀 봄으로써 전통으로 남겨져 있는 기술적인 사슬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이 몸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나 의미를 상기한다면 중요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 6) 작업면 상의 각 박리면의 길이

### 6.1) 몸돌길이 전체. 6.2) 몸돌길이의 반 이상. 6.3) 몸돌길이의 반 이하

유적의 성격에 따라 돌날의 수량이 많은 유적이거나 아닌가 나아가서 몸돌길이 전체의 돌날의 비율이 높은 유적인지 아닌지의 질문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이 유적이 정형의 돌날을 많이 요구한 유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이 석재와 기술간의 상관관계에서 온 결과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석재의 질 때문에 기술적용이 잘 수행되지 않아 몸돌길이의 전체 혹은 그에 가까운 박리가 안된 것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전체 길이로 떼어진 몸돌과의 비교를 통하여 몸들의 성공률과 돌날의 성공률을 크기별로 비교하여 보면 몸들의 활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질문들은 당시 구석기인들의 석재에 대한 기술적인 적용문제, 유적의 성격과의 문제, 기능분석과정에서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문제를 푸는 첫 질문들이 되는 것이다. 이 6가지 질문은 결과적으로 작업면의 양상들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다. 각 群이 몸들의 타격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작업면의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각 몸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

각 몸들의 군 및 그 아래의 각 式들과 이 질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몸들 분류자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함께 통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돌날몸들의 어떤 군의 형이 가장 많으며 그 몸들들의 박리의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앞의 분류와 DB 6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어떤 몸들에 타격면 반대면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몸들의 개수와 DB 4의 결과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 이상 복잡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분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류체계속에는 서로 밀접한 기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들을 통합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궁극적인 석기문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열쇠가 된다.

## 5. 몸들의 기술적 고리

셀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것처럼 돌날을 얻기 위한 돌날몸들(blade core)과 격지를 얻기 위한 격지몸들(flake core)이 함께 공유한다. 지역별로 혹은 유적별로 각각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돌날석기전통이 나타나는 유적에서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돌날떼기 기술은 새롭게 적용된 기술이지만 격지몸들은 이미 오랫동안 학습된 결과이기 때문에 돌날문화라 할지라도 이 두 기술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기구석기시대의 다양한 기술적인 변이과정을 통해서 이 두 기술이 어떤 기술적 갈등을 겪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른시기의 격지떼기와 비교하여 후기구석기적인 격지떼기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몸들의 기술적 고리를 풀어 가는데 돌날몸들과 격지몸들을 기술적으로 분류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예비몸들을 만드는 과정과 최초로 돌날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몸들을 가지고 박리하는 과정에서 떼어진 다양한 1차생산물들과 몸들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도 몸들을 연구하는데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분석방법들과 관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 5.1. 돌날몸돌과 격지몸돌간의 고리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위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한 몸돌들이 각 기술적인 특성들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크게 한 군으로 묶을 수 있는 돌날몸돌과 격지몸돌을 나누고 다시 돌날몸돌과 격지몸돌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 몸돌들에 대한 기술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5.1.1. 돌날몸돌

돌날몸돌은 구석기시대인들이 기존의 석기제작기술을 종합하여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기술로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또한 기술이 발달된 만큼 좋은 석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1차생산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박리를 통하여 석재 또한 절약할 수 있었다<sup>12)</sup>. 돌날제작기술은 르발루아기법과 비교하여 보다 경제적인 박리기술인 것이다. 또한 돌날과 같이 한 몸돌에서 다수의 일정한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사고체계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

돌날몸돌은 일정한 박리과정을 통하여 거의 형태적으로 유사한 1차생산물을 떼어내야 하는 기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와 연관된 석재의 선택으로부터 결과물까지 일정한 형태를 갖게되므로 형태적으로도 분류가 가능해 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형태 분석은 매우 제한된 형태만 설명하게 되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분류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기준의 분류체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즉 기술적인 특성들은 분류된 몸돌들과 이 기술적인 질문들과 상호 비교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관된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의 산물이라면 당연히 이 두 개체의 자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어떠한 기술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분석과정에서 돌날몸돌로 분류되었던 몸돌들은 각 群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4-7). 하지만 E群의 경우 돌날몸돌과 격지몸돌의 특성이 혼합 사용되고 있어 분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는 제외키로 하였다.

이 몸돌군에는 기술적으로 서로 같은 기반을 가지고 만들어진 동일성향 몸돌, 다른 몸돌과 분화된 기술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친연성향 몸돌, 끝으로 기술적인 갈등양상을 보이는 갈등성향의 몸돌이 있다(그림 15). 이 세 부류의 몸돌을 분류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셀렘자유적군에서 보이는 돌날몸돌의 일반적인 특징을 세 가지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A군은 서로 기술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12) Inizan M.-L., H. J. Roche, J. Tixier, 1992. *Technology of Knapped Stone*, CREP, p.58.

분류되어 있는 亞式들 별로 묶어 볼 수 있었다. 우선 타격면의 형태를 중심으로 묶어보면 기운타격면을 가지고 돌날을 떼어내는 A1.1, A1.3, A1.5와 평평한 타격면을 가진 A1.2, A1.4가 있는데 이 두 범주는 타격면과 작업면의 각도에 따라 돌날을 떼어내는데 있어서 성공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특징을 갖는다. 타격면의 각도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속성을 고려한다면 80°에서 90°사이의 각도를 가진 몸돌이 일정량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타격면을 중심으로한 분류는 B군(단일 타격면 두부분의 박리면)과 C군·D군·F군의 분류에 모두 적용되며 이 다른 群의 박리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 다른 군의 박리면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통계결과를 얻어 본다면 위의 두 범주에서 나타나는 돌날제작 성공률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셀렘자유적군에 대한 분석결과는 여전히 이 두기술이 나머지 B·C·D·F 群에 자주 사용되었으며 결과는 기운타격면을 가진 몸돌들의 성공률이 높았다. 이러한 류의 몸돌들은 동일성향 몸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직박리는 기술적인 '시도'의 측면에서, 대각선 박리는 기술적인 '적용'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직박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몸돌에 대한 시도가 시간적인 폭을 두고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진다면 이러한 몸돌은 오랜기간 기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갈등성향의 몸돌류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특별한 기술적 적용과정을 포함하는 몸돌 A1.6과 A5가 있다. A1.6은 타격면을 만드는 양상은 A5와 동일하지만 작업면은 다른 몸돌처럼 넓은 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셀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기술적인 적용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몸돌은 동북아시아에서 돌날몸돌을 활용하는 가운데 석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돌날을 떼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몸돌의 활용방법은 후에 세형돌날몸돌로 기술적인 분화과정을 밟아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이 A군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다른 군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기술적 친연성향을 지닌 몸돌로는 B1式(평행한 작업면), B2(인접한 작업면), D1(반대로 놓여진 두 타격면을 가진 몸돌), F1(각주형 혹은 준 각주형 몸돌) 등을 들 수 있다. 이 몸돌들 가운데에는 측면의 좁은 가장자리에 작업면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몸돌군은 후기구석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세형몸돌 제작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 겪었던 갈등성향의 몸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과정을 겪은 이후 이 몸돌은 돌날몸돌에도 적용되고, 후에는 세형몸돌에도 적용되는 성공적인 '적용'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특히 수직박리 방법은 다른 몸돌군의 박리과정에서 '시도'에 머물렀던 방법이었으나 측면몸돌에서는 비교적 성공

13) Derev'anko A.P. 1994. *op.cit.*

Abramova Z.A.1986. Klinovidnye nukleusy v paleolite Cevernoi Azii(북아시아 구석기에서의 측면 몸돌), *Paleolit i Neolit*, -L.

李憲宗, 1997a. 「東北아시아 세형돌날문화의 起源問題에 대한 試考」 『博物館年報』 5號, 木浦大學校博物館.

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있는 기술적 '적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셀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독특한 몸돌들이 있다. 그것은 몸돌 A3식과 그와 기술적으로 동일성향을 갖고 있는 D4식이다. 이 몸돌은 단면석기나 양면석기로 판단되기 쉬운 몸돌들이다. 하지만 작업면상에 나타나는 양상은 돌날을 떼기 위한 타격면조정과 여러 기술적 적용이 뚜렷히 나타난다. 이 몸돌은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박리하여 가운데 능선이 나타나는 양면석기의 기술과정과는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작업면상에 보이는 양상은 가로와 세로의 비가 1:2를 넘는 돌날을 떼는 몸돌임을 보여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범주는 우선적으로 몸돌로 분류되어야 한다. 후에 이 몸돌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석기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돌날떼기 방법은 지역별로 다양한 무리로 나뉘어지고 다른 특징을 가진 몸돌들이 서로 독특한 기술로 나타나 다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층위유적의 기술적인 변화 과정은 이 돌날몸돌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돌들이 변화하면서 후기구석기 최말기로 진전해 나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다층위 유적의 경우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이 몸돌들 또한 새로운 기술과 갈등과정을 밟아 가는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또 다른 기술적인 성격으로 통합되면서 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셀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몸돌들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기술은 다시 소형몸돌과 세형몸돌로 발전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성향의 몸돌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전개과정을 가능케 한 것은 후기구석기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석재를 선택하여 실험해 본 결과이기도 하다.

### 5.1.2. 격지몸돌 및 돌날몸돌과의 기술적 상관관계

셀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몸돌들 가운데 격지몸돌로 분류되었던 것은 A4·F2·F3식이다. 돌날격지를 주로 생산하는 A4식의 몸돌은 폭이 두텁지 않은 몸돌을 가지고 작업할 때 격지를 생산하는 몸돌로 사용되기도 한다(그림 14: ⑤).

F2식과 F3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사상박리기법의 기술과정을 수행한 몸돌로서 기술적인 계승관계를 알아 볼 수 있는 동일성향의 몸돌들이다. 이 몸돌의 분석결과는 석재의 선택부터 단면 혹은 양면 박리를 통하여 이 몸돌을 활용하고자 하는 구석기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 두 식을 적용한 몸돌들의 대부분은 둥글고 넓적한 자갈들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몸돌과 중형(5cm 기준)이상의 격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가정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이 돌날몸돌과 격지몸돌은 기술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문화적 성격에 따라 서로 혼합되어 한 몸돌에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돌날몸돌이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에서 대표성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돌날몸돌이 있는 유적들과 격지를 떼어내던 몸돌들 사이에 기



술적으로 교감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후기구석기유적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혼합양상이 그다지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셀렘자유적의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담은 몸돌들이 발견된 바 있다. 이번 분류과정에서도 격지몸돌을 조정하여 돌날을 떼어내었던 F2.2, F3.2, F4 등이 그와 같은 기술과정을 가진 몸돌들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혼합과정과 관계없이 비조직적인 박리과정에서 돌날과 격지를 떼어내는 몸돌들이 있다. 이 몸돌들을 E群으로 묶어 보았다. 이 몸돌 群은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비조직화된 박리과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몸돌들 가운데 돌날과 격지를 큰 기술적인 장벽 없이 떼어낸 것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인 혼합과정은 석기제작자가 석재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물이지만 이러한 두 가지 기술이 큰 고려 없이 또는 실수 없이 석재에 적용된다는 것은 이 두 기술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돌날석기문화가 주체적인 기술로 정착한 석기문화에 돌날과 격지를 혼용하여 박리하는 몸돌이 존재하는 것은 당시 구석기인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석기를 제작한 면을 보는 것이다. 또한 격지떼기 기술은 구석기인들이 시대와 관계없이 오랜 기간 활용된 석기제작을 위한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박리기법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석기의 비율을 보면 격지를 만드는 몸돌의 존재는 명확한 것이다. 격지몸돌은 그 속성상 돌날석기전통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적군에서도 여전히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몸돌연구에서 돌날떼기기술을 근거로 하는 복잡한 기술체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두 기술적인 속성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5.2. 몸돌과 부산물간의 고려

모든 몸돌은 우선 석재로부터 예비몸돌을 만드는 과정, 예비몸돌로 부터 최초로 떼어내는 일련의 1차격지떼기 과정, 작업면과 타격면의 불량으로 인한 일부 지점의 제거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기술적인 적용과정을 담고 있다<sup>14)</sup>. 이 과정에서 몸돌과 이 부산물사이의 제거과정을 통하여 당시 몸돌을 재구성하는 여러 기술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제기만 하는 것으로 마치고 다른 지면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인 적용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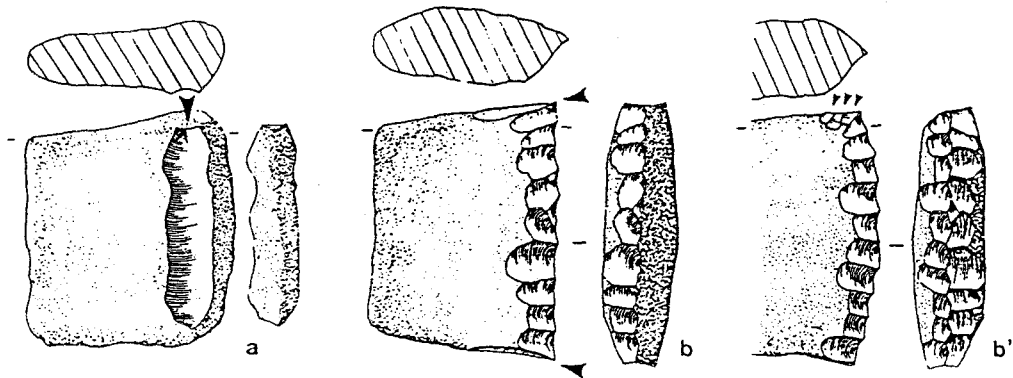
우선 예비몸돌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많은 부산물들이 있다. 단순히 평평한 타격면을 만들어 타격방향을 조절하여 기운 타격면을 가진 몸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기운타격면을 가진 몸돌을 평평한 타격면을 가진 몸돌로부터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기운 타격면을 가진 예비몸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셀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에

14) Brezillon M.N., 1977. *op.cit.*

Derevianko A.P., S.V.Markin, S.A.Vasilievskii, 1994, *Paleolitovedenie*(구석기연구), Novosibirsk.  
李憲宗, 1997c. 「전곡리수습 기술격지의 의미」 『韓國上古史學報』 25號.

서는 이 예비몸돌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이 몸돌은 1회 혹은 여러 번에 걸친 박리를 통하여 타격면을 조정하는데 그 타격면을 활용하여 일련의 박리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몸돌들도 함께 발견된다. 이 예비몸돌들은 분명히 외면적개와 구별된다. 이러한 예비몸돌들은 접합석기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예비몸돌과 적개류를 분류할 때 이러한 결과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예비몸돌로부터 1차 격지를 떼어내기 위하여 박리를 시도할 때 특별한 손질 없이 원 표피를 떼어내는 초기 돌날떼기와 한쪽 가장자리에 단면 혹은 양면으로 박리하여 능선 날(crest)을 형성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하여 타격면으로부터 박리하는 능선떼기가 있다(그림 3). 후자의 결과물은 긴 배형격지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sup>15)</sup>. 그 외형은 세형몸돌의 부산물인 배형격지와 유사하나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셸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에서는 이러한 두종류의 기술격지(그림 8①,②,⑧-⑩)가 모두 발견되어 이러한 기술적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석기제작소에 대한 분석 결과 특히 1차격지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비교적 볼록한 부분을 1차로 박리를 시도하여 떼어내고 그 옆을 따라 박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능선 날을 만들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전 주위로 박리를 진행하여 나가지만 셸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경우는 볼록한 곳이 있으면 한 곳 혹은 두곳으로부터 박리를 시작하여 나중에 전면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9:⑨⑩).



〈그림 3〉 초기 돌날박리를 위한 기술 :

- a. 초기 돌날떼기      b. 단면박리에 의한 능선떼기
- b'. 양면박리에 의한 능선떼기(Inizan · Roche · Tixier, 1992 인용)

15) Tixier J. 1984. Le débitage par pression, *Prehistoire de la pierre taillée* 2. p.60.  
Inizan M.-L., H. Roche, J. Tixier, 1992. *op.cit.*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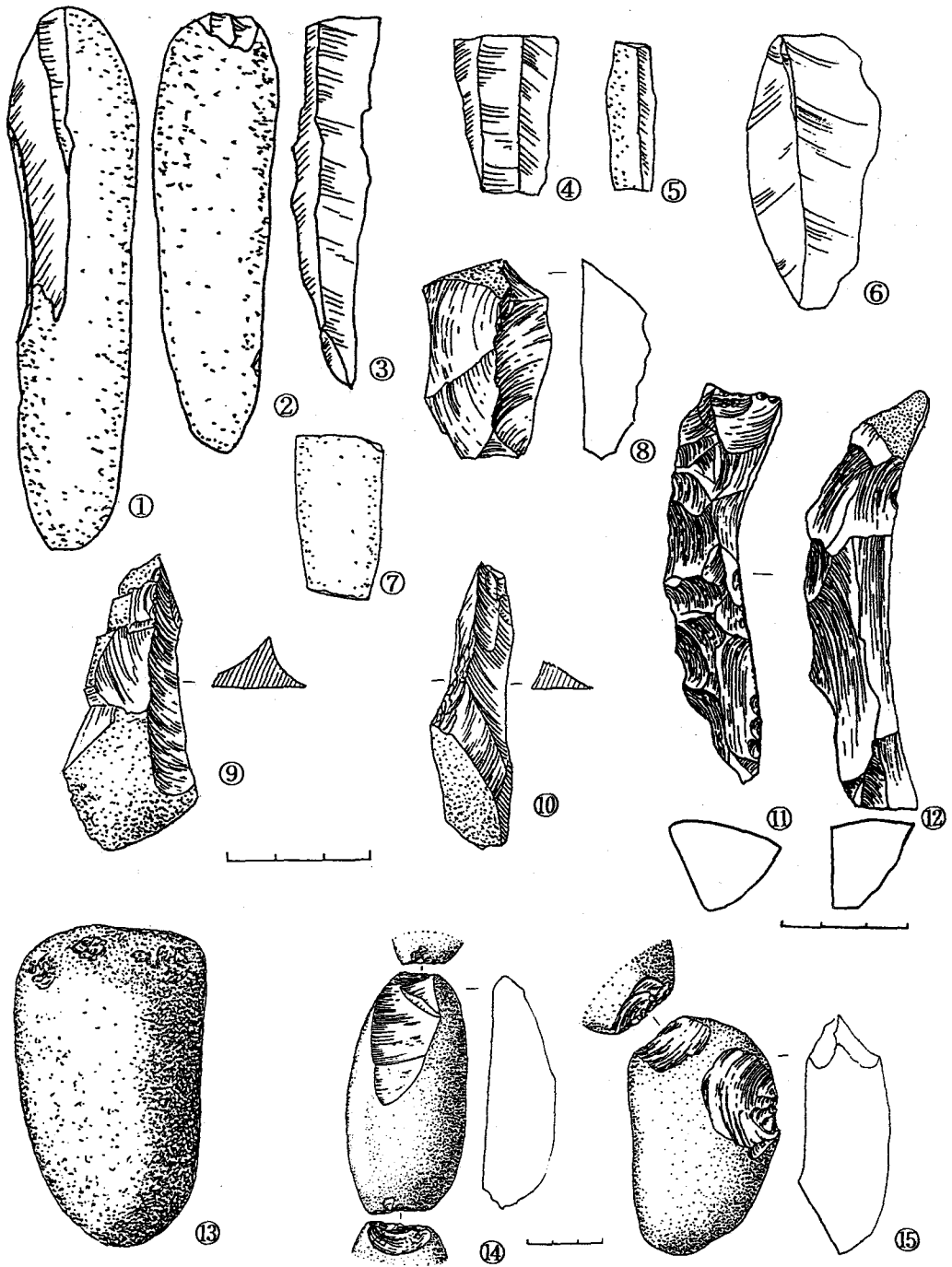
끝으로, 작업면과 타격면을 활용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석재의 내부구조에 의해 좋은 1차생산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타격면과 작업면의 상태에 따라 일부 혹은 전면을 박리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몇 차례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몸돌자체가 점차 작아져 가는 결과가 접합석기로 증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5.3. 몸돌과 1차생산물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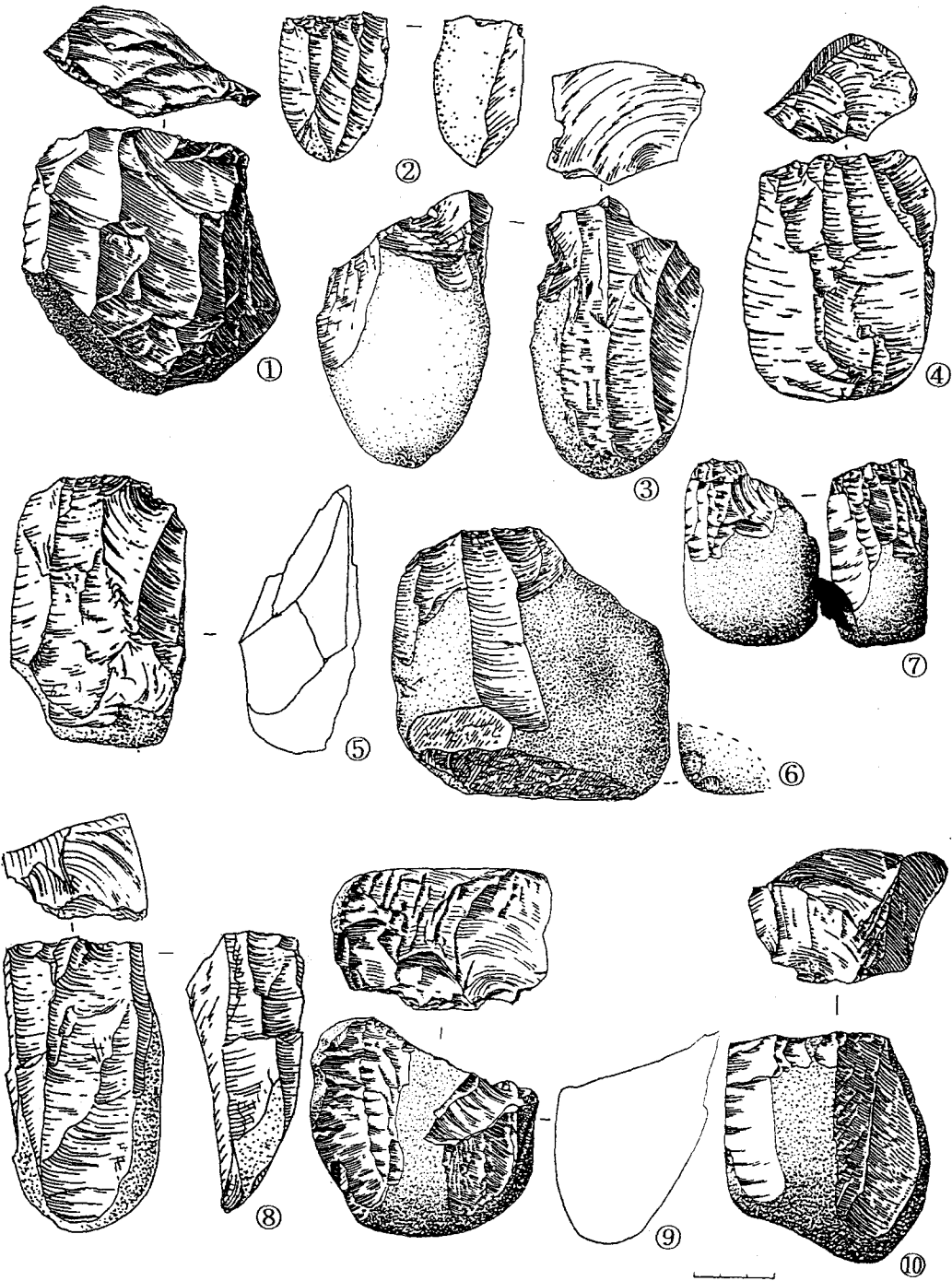
발견되는 돌날문화의 유적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몸돌과 1차생산물에 대한 수치적인 결과를 보면 무언가 틀린 결과를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전체 몸돌의 수량 가운데 돌날몸돌은 격지몸돌과 비교하여 단연 많다. 그러나 1차생산물의 총 수량은 돌날의 수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특히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서 발견되는 석기 유물들 가운데 여전히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격지이며 이 격지를 활용하여 만든 격지석기들이다.

하지만 조금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이해된다. 몸돌의 수량은 달리 돌날보다 격지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예비몸돌을 만드는 과정, 몸돌석기를 만드는 과정, 큰 격지석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격지가 부산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몸돌, 석기들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유적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발굴지의 선정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무작위 단위로 채집한 돌날과 격지에 대한 사용흔 분석을 통하여 두 생산물간의 사용흔 양상을 파악하면 격지보다 돌날이 사용흔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격지는 부산물이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결국 목적을 가지고 떼어낸 격지의 수량은 격지몸돌의 수량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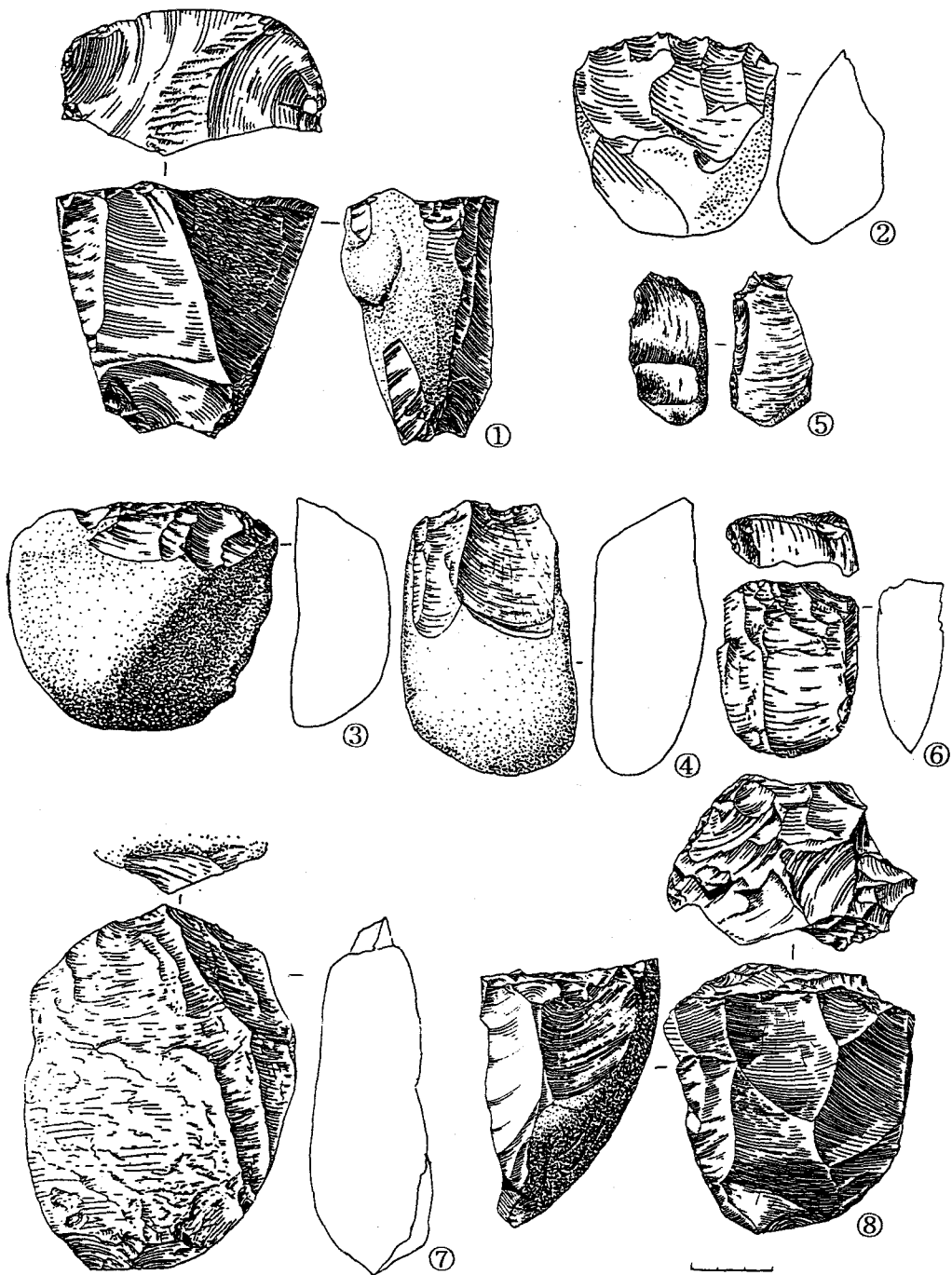
또한 석기의 경우 자주 격지를 가지고 잔손질을 통하여 석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격지석기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세밀한 사용흔 분석과 접합석기에 대한 분석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사용흔분석 결과 돌날 자체를 석기로 활용한 예가 많을 경우 돌날을 가지고 석기를 만드는 경우와 격지를 가지고 석기를 만드는 경우의 수치비교를 통하여 어떤 1차생산물을 활용하여 석기를 만들었는가를 밝혀 내고 이 자료들이 여러 유적을 통해 축적되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일 때 석기문화의 성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돌날석기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격지를 떼어내었던 접합유물과 격지를 가지고 잔손질을 통해 일정한 특징적인 석기를 산출한다면 격지석기전통의 성격을 강하게 포함한 돌날석기문화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돌날과 격지, 돌날몸돌과 격지몸돌, 예비몸돌과 대형석기의 수량 등의 관계에서 일정한 규칙이 보이고 돌날과 돌날로 만든 석기의 수량이 일정량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돌날석기문화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8〉 돌날각종(1-7) ; 기술격지 각종(8-12) ; 망치 각종(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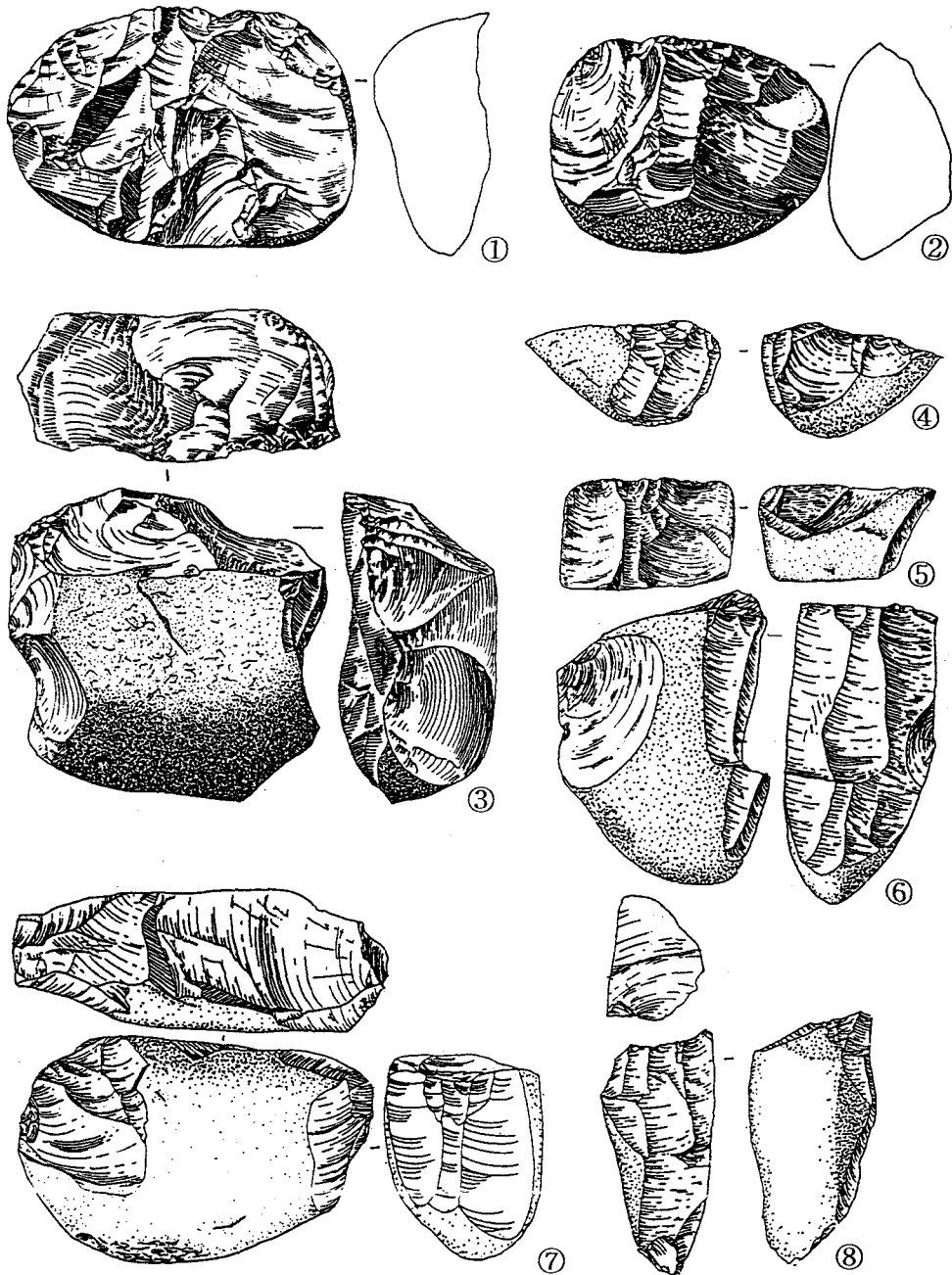


<그림 9> 셸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몸돌 : A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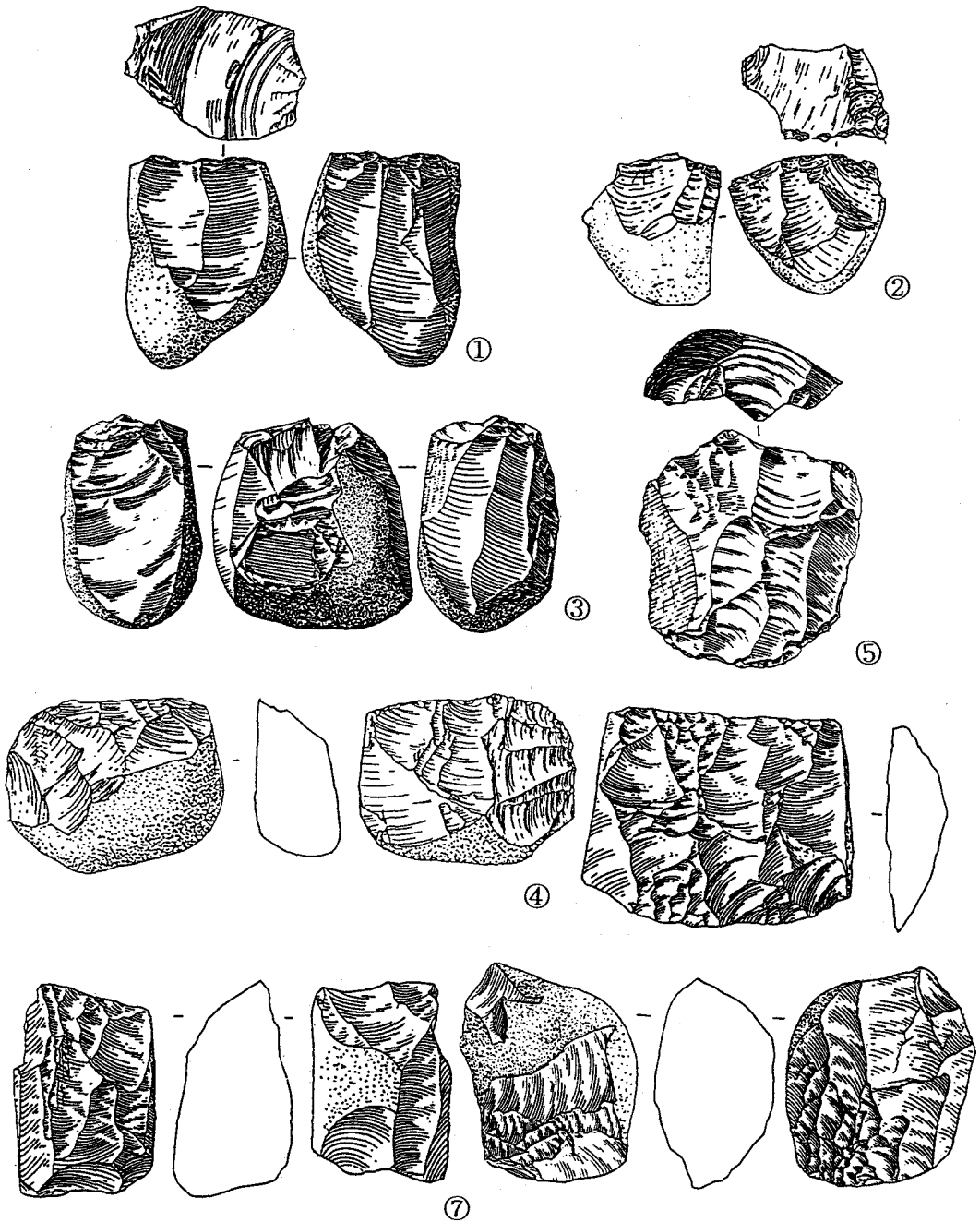


<그림 10> 셸렙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몸돌 :

A1.2(1), A1.3(2), A1.4(4), A1.5(7), A1.6(3·5·6), A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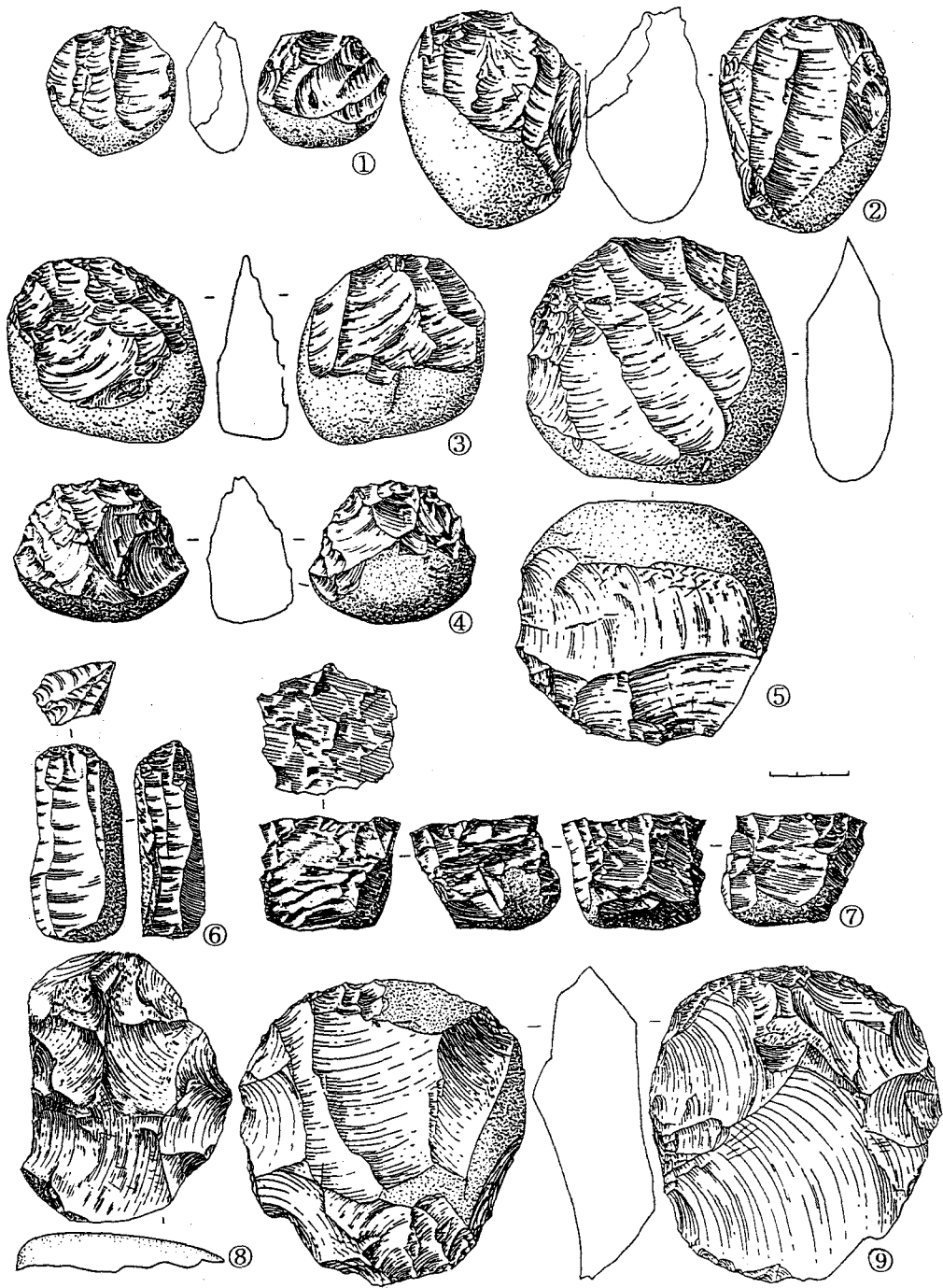


<그림 11> 셀렙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몸돌 : A3(1·2), A4(3-5), A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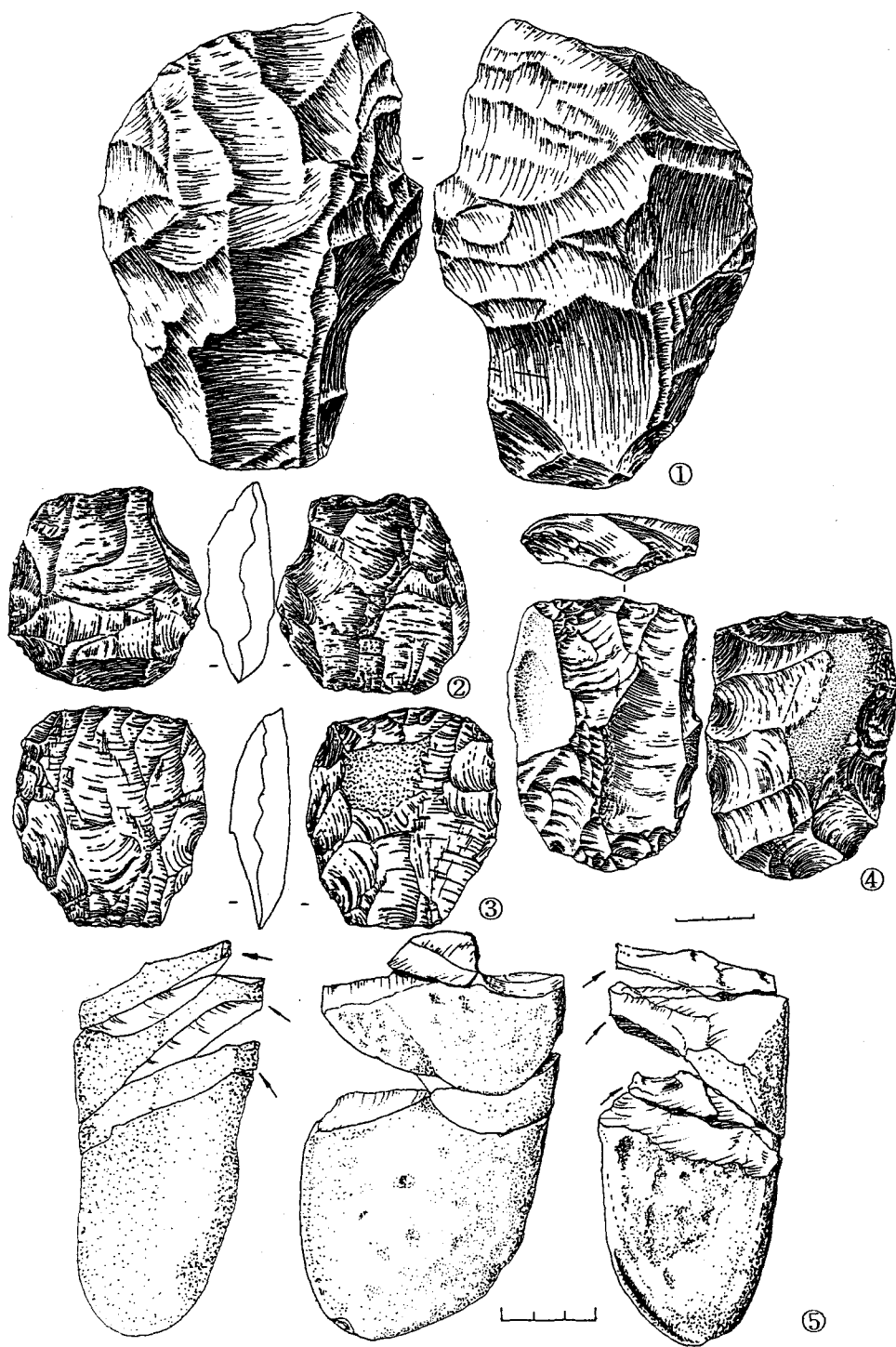


<그림 12> 셸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몸돌 : B1(1), B2(2), B3(3), C1(4), C2(5·6), D1(7), 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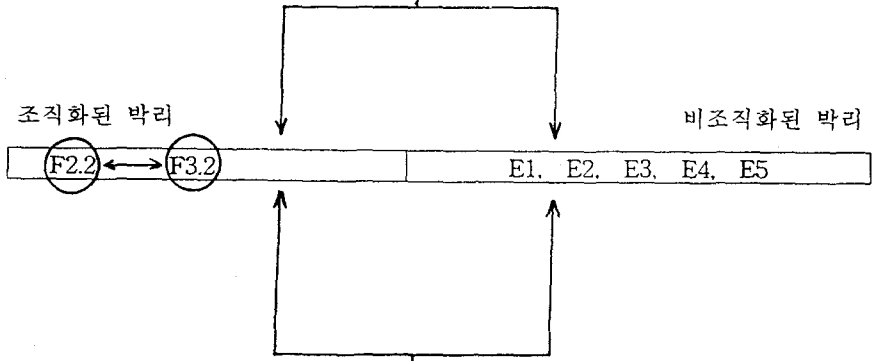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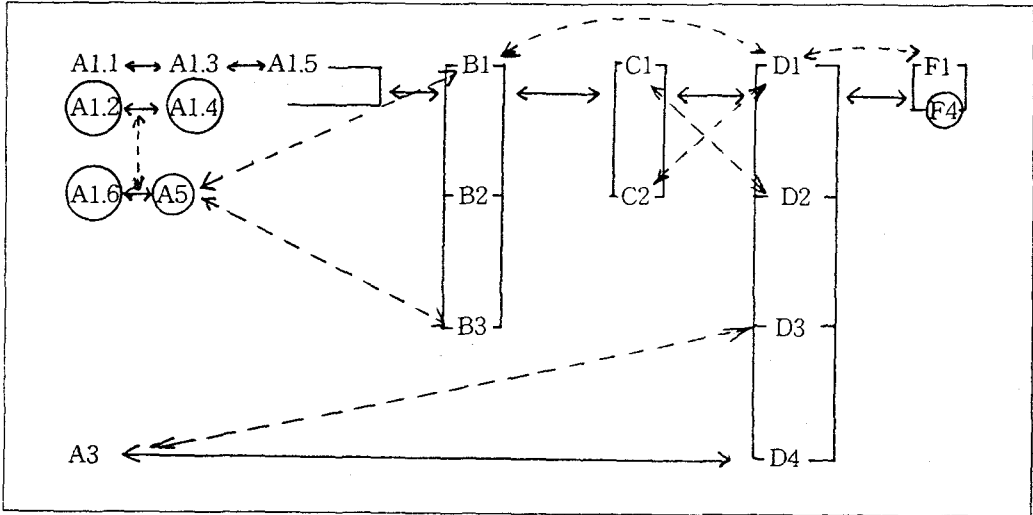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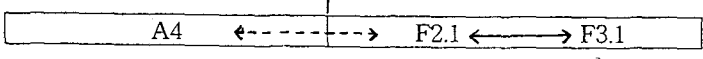
〈그림 13〉 셸렐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몸돌 : D3(1·2), D4(3-5), F1(6·7), F2.1(8), F3.1(9)



〈그림 14〉 셀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몸돌 : F3.1(1), F3.2(2·3), F4(4), 접합몸돌(A4)



격지몸들의 기술적 연결고리



- ↔ : 동일성향의 몸들
- <- - - -> : 친연성향의 몸들
- : 주요 갈등성향의 몸들

<그림 15> 셀렉자 후기구석기유적군 몸들의 기술적 고리

돌날몸들의 1차생산물 가운데 돌날과 돌날격지의 성격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돌날몸들과 격지몸들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이 두 1차생산물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리 분류되기도 한다. 우선 돌날격지를 정의하자면 타격면의 위치는 장축의 위 끝에 있고 그 양쪽 세로 축의 양 능선이 평행하게 나타나는 것은 돌날과 동일하지만 단지 그 길이와 폭의 비가 2:1을 넘지 않는 격지를 말한다. 돌날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돌날격지가 생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 셸렘자 후기구석기유적군의 경우 몸들을 만드는 과정과 재생활하는 과정에서 작업면의 길이가 짧아서 나타나는 결과로, 2) 몸들을 구성하는 석재의 질이 나빠 박리하는 과정에서, 3) 석기제작자의 박리방향의 착오로 결과적으로 돌날격지가 나타나게 된다. 돌날석기문화에서 돌날격지는 일반적으로 돌날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돌날격지가 많아서 돌날격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로 설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위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정의하여야 한다.

## 6. 맺음 말

몸들은 석재의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몸들의 외형이 몇 가지로 규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형태적 분류를 할 경우 분류의 범위도 좁아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몸들분석은 어려워진다. 하지만 기술적인 입장에서 분류해 본 결과 오히려 여러 기술을 몸들제작에 적용하는 가운데 석재도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몸들의 형태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몸들은 기술적인 속성을 분석하므로써 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분된 각 群이나 式을 볼 때 구석기인들이 몸들을 다루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초기 체계를 바탕으로 1차생산물을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의 변화와 작업 중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실수나 석재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사고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몸들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분화과정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되는 경우 서로 일정부분 통합하여 해석하므로써 당시 구석기인들의 기술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특성은 단지 주변환경에만 제약받는 것이 아니고 유적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구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sup>16)</sup>. 즉 영구주거지역에서의 몸들의 구성, 석기제작소에서의 몸들의 구성, 일시주거지역에서의 몸들의 구성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위의 분석 결과들을 각 유적별로 분석한 후 몸들과 1차생산물의 구

16) 李憲宗, 1995. 앞글. pp. 1-22.

성을 주의 깊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몸돌은 단독적으로 결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 몸돌은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격지를 포함한 많은 부산물들이 있으며 접합되는 유물들이 없다면 동일한 층위에서 나온 이 부산물들을 가지고 몸돌의 박리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몸돌의 기술적용과정은 이 부산물과 또한 1차생산물과의 관계를 풀어가면서 더욱 명확해 진다.

후기구석기시대의 돌날석기문화를 유지하는 유적에는 돌날몸돌과 격지몸돌이 함께 발견되는 예가 많다. 몸돌 상에 남은 돌날과 돌날격지 흔적, 돌날과 격지의 흔적, 돌날몸돌과 격지몸돌의 비율과 상관관계 등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각 석기문화가 갖고 있는 기술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석기발전과정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문화를 구별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몸돌은 후기구석기인들에게 있어서 석기문화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당시 도구사용과 연관된 모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1차 사료이다. 따라서 당시 구석기인들에게 몸돌의 제작과정은 그들의 기능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박리단계로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러면서도 완벽한 사고체계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석기들에 대한 연구에 앞서 당시 구석기인들의 문화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몸돌들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었던 분류표와 방법은 모든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후기구석기유적 가운데 가장 지명도가 높은 유적군 가운데 한 유적을 대표적으로 분석하므로써 관련된 다른 유적들과 비교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르강 유역의 다른 유적에서 이 유적에서 발견된 몸돌들과 같은 기술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적들이 많으며 그 범위는 바이칼일대, 연해주 일대, 사할린, 동북시베리아 까지 넓게 나타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기술적인 접근은 우리 나라 후기구석기유적의 몸돌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관점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17) Derevyanko A.P. 1983. *Paleolit Dalnego Vostoka i Korei*(극동과 한국의 구석기시대), Novosibirsk.  
Dikov N.N. 1977. *Arkheologicheskie pamyatniki Kamchatki, chukotki i Verkhnei Kolymyi*(캄차트카, 추코트카 콜르임 상류의 고고학유적), M.  
Dikov N.N. 1993. *Aziya na styke s Amerikoi b drevnosti*(선사시대의 미국과의 접촉에서의 아시아), S-P.  
Mochanov U.A. 1977. *Drevneishie etapyi zaceleniya chelovekom Severo-Vostochnoi Azii*(동북아시아 인류점거의 가장 오래된 단계), Novosibirsk.  
Golubev V.A. i dr. 1988. *Sakhlin v epohu kamrya*(석기시대의 사할린), Novosibirsk.  
Konstantinov M.V. 1994. *Kamennyii vek vostochnogo regiona Baikakskoi Azii*(아시아의 바이칼 동부지역의 석기시대), Ulan-Ude -Chita.  
Kuznetsov A.M. 1992. *Pozdний paleolit Primoriya*(프리모리에의 후기구석기), Vladivostok.